

□ '통일 후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한·독 국제학술세미나

무모한 희망만으로 통일 불가능하다

참여 유도하고 공동목적위해 함께 노력해야



▲통일이 되면 청소년에 대한 사고방식과 가치관, 행동경향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지난 25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아태지역연구원 주관으로 독일의 경험에 비해 '통일 후의 청소년 문제'를 다룬 한·독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다음은 네번째 발제자로 나온 기젤라 트롭스도르프 교수(콘스탄츠 대학)의 '통일이후 동독 청소년의 사회화'란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발췌,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1989년 동독의 5개주와 1천7백만의 동독인들이 서독에 통합되면서 구동독(DDR)은 사라졌다. 그러나 양 독일 국가의 1989년 이후의 통일 과정은 동독 지역의 모든 기구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는 이제까지의 구동독시절의 경제적, 정치적, 법적, 교육적, 사회적 체제의 완전한 해체와 서독 체제로의 대체를 의미했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 때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기도 한다. 때문에 새로운 발달과제를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는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제의 통제 아래 강하게 유지되어 오던 가족구조의 붕괴와 이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동년배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매개체역할을 해온 청소년 시절과 청소년 단체들의 해체, 권위적인 교육체제에서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서독의 교육체제로의 전환 등은 사회화의 제반조건들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독 청소년들은 과거 동독시절, 가족 밖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회주의 체제의 시설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이들은 새로운 정치질서에는 잘 융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동독 청소년들은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다. 특히 범죄문제, 서독인들의 거만한 자세, 기업체들의 파산,

과거 공산당의 교령의 당원들이 다시 집권하는 것, 동독의 기회주의자 등은 통독으로 인한 변화와 관련하여 동독의 청소년들이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독일 청소년들은 통독 이후의 독일 체제에 대해서 서독의 청소년들에 비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행동경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남북한 통일이러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남북한 모두 무모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그 이후의 실망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현재의 차이들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시간에, 토론에 참석한 황승연 교수(사회학과)는 "독일의 경우엔 경제적 차나 체제의 우월성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 우월성을 예로 들어 남한이 더 우월하다는 말이 종종 언급되었지만,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를 보면 남한이 더 먼저 붕괴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선 '못살지만 비굴해지지 않는다'며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라며 통일후의 남북한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위해 어떤 모델이 제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롭스도르프 교수는 '경제적 우월성과 도덕적 우월성이 조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동독청소년의 경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설정하는 시기이며, 경제적인 우월성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리: 최홍섭 기자〉

□ 주한 독일문화원장 만프레드 오토 박사를 만나

지난 25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Peace Hall에서 열린 한·독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주한독일문화원장 만프레드 오토 박사를 만나 통일후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점을 들어보았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독일의 경우에도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집단 논리에 근거한 '작은정부'가 더 좋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일후에도 많은 세습부담과 범죄의 증가, 수입감소 등으로 회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독일인들은 비극적 역사(제2차 대전, 분단)를 딛고 진정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통일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독일 통일후 경제성장 등 많은 긍정적 효과도 낳았지만 역기능도 잊지 않은가

통일후 동·서독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



남·북한의 통일이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나

통일이란 땅과 인구의 결합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소비와 생산의 증가를 뜻한다. 독일의 경우, 혼란되지 않은 동독의 인력에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 인구는 고스란히 실업률 증가와 연결되었다. 독일이 예전보다 외향적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남·북의

통독의 경험, 한국엔 값진 교훈

상, 사회적 차이도 매우 큰데, 그 한 예가 사회보장제도(연금, 건강보험)이다. 서독인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 제도를 동독인들은 전혀 노력과 준비없이 누리려 했고 그 때문에 내부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여러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별세(동포납세)로 동독의 열악한 기간산업(도로, 교량, 철도 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일부 비판주의자들은 '빌려온 돈에 물불가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8년간 서독인들이 동독을 오가며 동독의 계속적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 이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문제의 해결은 대단히 희망적이라 본다.

〈류지은 기자〉

통역: 맹완호 주한독일문화원 문화담당

□ 국립대학정책과 교육개혁을 위한 특별 정책토론회

“서울대 재편없이 교육개혁 가능한가”

어떠한 재산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의 창구로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온 서울대. 그러나 이러한 서울대 명성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교육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고 허황된 엘리트주의와 학문적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특혜화 작업, 즉 서울대 특별법 제정은 서울대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를 불러일으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주최로 지난 11월24일 '서울대 재편없이 교육개혁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기용(상명대)교수, 강치원(강원대)교수가 '국립대 통합의 필요성', '서울대법안은 위헌소지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선중(성균관대)교수, 김동훈(성공회대)교수, 이부영(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홍은광(서울대)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기용교수는 발표문에서 "이번 서울

강 단 시 론

젊은이의 대선 감상법

15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누굴 찍어야 할지 많은 의견들이 오간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들도 있다. 후보자 면면을 보면 이런저런 흠이 있어서 누굴 지지해도 혼란스럽다. 우리에게 왜 보다는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한번도 훌훌하게 채워진 적이 없다. 지도자들은 대체로 정의와 진리를 찾기보다는, 거짓 위선사육술로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국민들 눈앞에 각인되어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많은 난제들을 해소하여 위대한 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고대하는 환상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완벽한 지도자는 실제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수립해야 하는가? 우리는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누가 당선되면 이번 대선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단편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다. 앞으로 5년은 긴 역사의 한 기간에 불과하다. 5년후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언젠가 완벽한 인물이 등장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5년후 세상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볼때 그런 인물이 있는가?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는 특별히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교육받고 성장해온 우리중 한사람이다. 바로 나일 수도 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게 아니라 사회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기준의 차원에서 인물상을 그리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인물들은 이상의 다양한 표현인 것이다. 결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좋은 사람 고르기'보다 '가장 덜 나쁜 사람 고르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관심은 이번 대선보다는

'앞으로 2,30년후 펼쳐질 정치현실에 있어 과연 얼마만큼 더 나은 후보를 선택대상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하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 자신의 의식세계에서 내면적 성장이 이뤄지는 것은 곧 가장 덜 나쁜 지도자와 가장 좋은 지도자간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사회는 개인에게 의지하고 있고 개인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구성원들이 진

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시민들의 의식에 정의를 대안 올바른 인식없이 어떤 정치사회도 정의를 세울 수 없다.

현실정치는 부패 타락술수로 얼룩져 있다. 정치는 인간을 부패시킨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정치사회의 부정부패의 근원을 인간의 무질서에서부터 찾아냄으로써 인간행동의 일탈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그 치유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비판과 치유의 노력을 자기자신의 속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현실정치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코언 미국방장관의 말과 같이 "우리는 완벽한 수 없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사회적 범주의 치유가 어렵다면, 적어도 한 개인의 소수주인 인간의식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서 불가능하다면 남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의식질서를 회복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흐름을 형성할 때, 그 사회의 지도자는 질서잡힌 의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에베레스트산이 고산준봉들로 가득한 히말라야 산맥속에 있기에 그 가운데 우뚝 솟아 세계 최고봉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김용운 기자〉

해결방안으로 초중등교육개혁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주장하며 서울대 폐지론의 반론을 제기했고 성공회대의 김동훈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교육개혁을 강요해 준 범위의 사회문제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 전 대학개혁위원장인 바 있는 홍은광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서울대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며 자체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서울대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적인 토론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의 장 마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의 설원에서 통한다!

SK Telecom

전국의 스키장 곳곳에서 터지는 환상의 겨울축제-스피드011이 함께 합니다

SPEED PASS(1일 무료 리프트 이용권)를 드립니다

- SPEED PASS는 전국 4개 유명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일 리프트 이용권입니다.
- 행사기간 : '97. 12. 1 ~ '97. 12. 11
- 배포대상 : 행사 기간중 SPEED 011에 신규 또는 전환 가입하신 고객
- 배포방법 : 12월 11일까지 가입영수증을 가지고 SK텔레콤 지점에 방문하시면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SPEED PASS 사용요령

- 사용기간 : '97. 12. 1 ~ '98. 1. 31
- 사용장소 : 무주리조트, 바이스타운, 보령 휘닉스파크, 현대 성우리조트
- 사용방법 : SPEED PASS를 스키장 리프트 매표소에 제시하시면 1일 무료 리프트 이용권 1매를 드립니다.

SPEED 011 경품대추제

퀴즈를 맞추신 스피드 011 기존 / 신규고객 중 추첨을 통해 무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 011은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도심 깊숙한 곳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응모대상 : 스피드 011 기존 / 신규고객
- 응모기간 : '97. 12. 1(월) ~ '97. 12. 13(토)
- 응모방법 : PC통신(SK텔레콤 기업포럼), 인터넷(http://www.sktelecom.com), 우편(12월 13일 소인분 유효까지)
- 우편접수처 : 135-280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전성빌딩 15층 SPEED 011 경품대추제 담당자 앞
- 상품대역 : - SPEED 011 금상 (11명) : 스키장 크리스마스 캐치기 (1박 2일 / 4인 가족 기준 / 숙박, 리프트 이용권)
- SPEED 011 은상 (111명) : SK주유권 (10만원 상당) - SPEED 011 동상 (1,111명) : SPEED PASS 각 2매
- 당첨자 발표 : PC통신 및 인터넷 응모자 - SK텔레콤 기업포럼 및 인터넷 홈페이지상 발표, 영서 응모자 - 개별발보
- 발표일자 : '97년 12월 17일 (수)

SPEED 011 스키 페스티벌

- 장소 : 전국 유명스키장 (무주리조트, 바이스타운, 보령 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현대 성우리조트)
- 기간 : '97. 12. 10 ~ '98. 2. 28
- 프로그램 : SPEED 011 무료 통화서비스, SPEED 011 스키텔렌지, SPEED 011 사랑의 작은 음악회
- 문의전화 : (02) 5289-554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